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박희경

2020년 8월



#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

지도교수 김 대 영

박 희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박희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인 회



위 원

양 진 건



위 원

김 대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8월

【국문초록】

##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

박 희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지도교수 김 대 영

본 연구는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통해 루소의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교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연주의적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루소의 교육사상을 이해하는데 해석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루소의 생애와 아동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 교육사상에서 핵심 용어인 ‘자연에 따르는 교육’과 ‘소극적 교육’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셋째, 『에밀』을 통해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 고찰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루소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육사상가이다. 그는 『에밀』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발달을 5단계로 나누어 교육방법과 내용을 제시하며,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루소의 아동교육에 대한 정의는 자연주의적 관점만으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는 루소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루소는 학문에 있어서 많은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오늘날 까지도 아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 루소는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며 자신의 교육사상을 통해 아동중심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중심 사상은 칸트, 바제도우, 페스탈로찌, 듀이 등에게 소극적·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그는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루소의 교육사상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인 ‘자연에 따른 교육’과 ‘소극적 교육’ 등 핵심 용어를 통해 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자연에 따른 교육을 살펴보면 루소는 사회를 타락한 곳으로 『인간불평등론』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으며,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곳으로 자연을 말하였다. 이 점으로 보아 루소는 자연을 단순한 ‘공간’ 또는 ‘환경’의 의미보다는 인간 사이에서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갈등, 투쟁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자연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에 따른 교육은 그가 상정한 자연 상태와 현존 인간의 상태를 연결시키기 위해 생각해낸 추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소극적 교육의 경우 기존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외부의 최소한의 개입’ 의미보다는 집단생활을 통해 발생한 대상들에 대한 비교 능력은 인간을 타인의 시선에 결과적으로 종속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소극적 교육은 외부의 영향 없는 생활을 이야기하며 누군가에 의한 교육, 억압, 종속이 아닌 외부의 영향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교육의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셋째, 루소의 아동교육에 대한 정의는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주로 해석되어졌다. 그러나 그의 저서 『에밀』, 『사회계약론』, 『불평등기원론』을 통해 바라본 아동교육의 정의는 자연주의 관점으로만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루소는 일반적인 의미에 ‘자연’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이 상정한 자연의 의미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루소의 아동교육사상은 기존의 자연주의적 입장으로만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처럼 루소의 사상은 단순한 개념으로의 자연에 대한 설명 외에 새로운 사회 건설,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 등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주의적 입장으로 바라본 루소의 교육사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질문 .....	3
II. 이론적 배경 .....	4
1. 루소의 교육사상 배경 .....	4
1) 시대적 배경 .....	4
2) 사상적 배경 .....	5
3) 교육사상의 특성 .....	6
2. 루소 교육사상의 중심 개념들 .....	8
1) 자연에 따른 교육 .....	8
2) 소극적 교육 .....	9
3. 루소 「에밀」 구성 .....	11
1) 영·유아기 .....	11
2) 아동기 .....	12
3) 소년기 .....	14
4) 청년기 .....	16
5) 성인기 .....	17
4. 선행연구의 고찰 .....	19
III. 연구 분석 틀 .....	23
IV.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 .....	25
1. 개론서 및 논문에 표현된 루소의 아동교육 .....	25
1) 자연에 따른 교육 .....	27

2) 소극적 교육 .....	28
2. 『에밀』을 통해 본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 .....	29
1) 자연에 따른 교육 .....	30
2) 소극적 교육 .....	31
<b>V. 요약 및 결론</b> .....	34
1. 요약 .....	34
2. 결론 .....	36
<b>VI. 참고문헌</b> .....	38
<b>Abstract</b> .....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루소의 교육론은 비도덕적 인간이 만연해지는 사회에 영·유아기부터 교육의 기본을 다시 찾아주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아동의 본성에 기초하여 자연주의 교육을 통해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황성원, 2012: 338). 루소의 아동교육은 유아교육현장 및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개론서 및 선행 논문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루소의 교육사상은 아동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론서 및 선행 논문을 통해 바라본 루소의 아동교육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정의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자는 아동교육에 대한 해석이 개론서 및 선행논문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숙이(2005)는 루소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사상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미나 개념적인 성향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위 내용처럼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루소의 교육론이 유아교육현장 및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개론서 및 선행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전달된다면 학습자 또는 독자마다 해석할 때 혼동이 따를 것이다. 개론서의 특성상 지식을 대량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이점은 있지만, 무비판적인 종합, 사상의 지나친 분류, 진로 지도의 단순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화려한 수사로 포장하는 경향, 사회 지배집단의 가치와 활동을 전파하려는 경향(Schubert, et. al., 2009)을 고려한다면 잘못된 해석 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해석들이 유아교육현장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루소의 교육론은 아동교육에 있어서 계속 언급된다. 그의 교육사상은 아동 중심의 근대적 교육사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적인 측면에서도 현대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김숙이, 2006). 즉, 루소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교육 상황 속에서 현대교육을 이

해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 안인희(1985), 박주병(2001), 김상섭(2003), 주영흠(2003)들이 이러한 주장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루소로부터 현대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숙이, 2006). 이처럼 루소의 교육사상은 오늘날까지 아동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은 영국의 신교육 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였고, 21세기에 이르러 루소의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교육은 우리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박은미, 2009: 59).

이상의 연구 외에도 루소의 저서인 『에밀』에서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의미와 교육의 문제들을 다룬 연구논문들이 많았다. 그러나 루소의 교육관에 비추어 『에밀』속 아동교육을 자연주의적 해석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루소의 저서인 『에밀』을 근간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아교육 이론을 살펴보고, 루소가 강조하던 교육론이 현재 아동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루소의 『에밀』을 통해 루소의 교육론을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루소는 약 250년 전에 『에밀』을 발간하였다. 고전은 단지 옛날에 만들어진 고서를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에 관한 고전 읽기를 통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인간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고전은 지난 과거의 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책이라 하였다(황성원, 2012). 『에밀』은 사상의 유용성을 잃어버린 고서가 아니라 아직도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준다(김용민, 2004: 194).

하지만 현재에 와서 루소가 말한 아동교육의 개념 및 정의들이 각 개론서 및 선행 연구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루소는 아동교육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기술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루소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통해 그의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루소의 교육사상이 유아교육의 어떤 입장으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의 저서 『에밀』을 통해 아동교육을 자연주의적 해석만으로 밝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먼저 시중에 출판된 유아교육 개론서 4권 및 선행논문 5편을 요약하여 루소의 아동 교육사상이 현재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루소의 저서와 선행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써 해석학적인 한계가 있지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루소 저서들의 원전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언어상의 문제로 한국어 김중현 역 (2008), 오증자 역 (1984), 민회식 역 (2008)들을 살펴보았으며,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상호 비교하며 참조하여 분석·종합 및 해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연구 질문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알아보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루소의 생애와 아동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 교육사상에서 핵심 용어인 ‘자연에 따르는 교육’과 ‘소극적 교육’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셋째, 『에밀』을 통해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시대적, 사상적 배경 및 교육사상의 특성

#### 1) 시대적 배경

루소가 태어난 1712년경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영토를 늘리기 위해 전투가 한창이던 시기였다. 이 싸움을 주도한 영국과 프랑스는 거듭된 전쟁으로 프랑스가 크게 불리하던 상황이었다(이혜진, 2008). 이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 부족과 사회의 혼란이 뒤따르며 사회 이면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상류사회의 사치스런 생활의 이면에는 암흑 같은 민중의 비참한 일상생활이 있었음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송지민, 2006: 7). 이처럼 루소가 살았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의 대부분은 사회의 혼란으로 민중의 암흑 같은 일상생활 그리고 반란이 만성화되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계몽주의가 대두되고 있었다. 계몽이란 인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이성을 각성시킨다는 의미로 즉, 중세의 잔재인 인간 본성의 원죄설,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와 진리의 탐구가 강조되었고, 이러한 정신의 흐름은 종교적 권위주의, 절대 군주제도, 폐쇄적 경제 제도, 계급형태의 사회 제도에 항거하여 이성·과학·자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확립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김태호, 2004: 12).

또한 18세기는 정치적인 면에서 절대주의(Absolutism)의 시대로 전제 군주의 지배가 정당화되면서 왕권의 계속적인 세습과 신성불가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난 절대주의는 정치사적인 과정에서 바라 볼 때, 중세적 봉건체제에서 근대적 민주체제로 전화하는 과도기적 시대상의 산물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차석기, 1986: 375).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개혁이 강구되고 현실의 변화에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사회의 부정

과 미신에서 탈피하고자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신인 ‘과학’을 발전시켜 자연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졌다(이혜진, 2008: 19). 과학에 대한 연구는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2) 사상적 배경

루소의 시대라고 불리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는 종교와 더불어 형식주의가 만연하게 나타났다.

18세기 전반적인 시대는 루소가 크게 영향을 받은 사상 중 하나인 계몽주의가 인간의 정신과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영국 경험론의 체계를 확립시킨 로크가 『신앙의 자유론』을 발표한 후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발표될 때까지의 약 1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한다. 계몽이란 인간 내부에 잠들어 있는 이성의 각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신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중시하였으므로 인간 본성의 원죄설, 비과학적, 비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에 따른 합리적 사고와 진리의 탐구가 강조되었다(정은정, 2007: 7). 또한 계몽주의는 그 뿌리를 르네상스의 휴머니즘과 17세기 과학적 실학주의에 두었다고 보여지며, 사상에 있어서는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의 절대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사조이다(안인회, 1990: 13).

이처럼 루소는 절대주의 정치 아래 구 봉건적 제도와 사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몽주의와 같았다. 하지만 그 외의 입장에서는 계몽 사상가들과 반대의 입장에 있거나 오히려 그들을 비판했다(송지민, 2006: 11). 이렇게 볼 때 루소는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고 비판하며 자신만의 사상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해 당시 문명진보에 대한 기대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한데 그것을 타락하게 한 것은 단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도하게 발전한 문명 때문이라 말했다. 이처럼 루소는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과 지나치게 세련된 것들에 의해 어질러진 문화와 나약함과 사치를 반대하였으며,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간이 사회로 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다(송지민, 2006: 12). 이처럼 루소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과도하게 발전된 문명, 사치 등에 대해 통렬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루소의 사상을 볼 때 주로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루소 이념의 근원은 스토아(Stoa)학과와 세네카(Seneca)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정치조직에 대한 사상은 고대 폴리스(Polis)의 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루소는 플라톤(Platon)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이혜진, 2008). 이처럼 루소는 고대사상가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계몽사상에 뿌리를 둔 저명한 여러 학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특히 몽테뉴(M. E. de Montaigne, 1533~1592)와 로크(J. Locke, 1632~1703), 코메니우스(J. Comenius, 1592~1670)의 교육사상은 루소 교육사상의 형성과 교육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나 코메니우스의 사상은 루소의 유아 교육방법에서 직관과 경험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고, 나아가 발달단계에 따른 유아교육의 방법에 대해 시사점을 갖게 해 준다(설연남, 2010: 10). 루소는 이처럼 그들의 사상을 비판 또는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사상을 만들어 나갔다.

이처럼 루소의 사상은 자신이 살았던 18세기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영향을 받았으며, 과거의 자신에게 영향을 준 학자를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그가 살았던 18세기의 시대적 상황은 계몽주의 사상이 전개될 수 있는 사상이 전개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계몽주의의 사상적 흐름이 루소의 교육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설연남, 2006: 10).

위에 내용으로 보아 루소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온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자신만의 교육사상을 만들었다. 또한 루소는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두고 부분적인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때로는 비판하는 입장의 루소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루소는 사회에 있어서 무조건적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루소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 3) 교육사상의 특성

루소가 생각하는 교육은 왜곡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사회의 영향에 의해 빼돌어지지 않은 자연 본성 그대로의 인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한 마디로 참다운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덕

망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손현목, 1989: 335).

루소는 아동교육의 목적을 올바른 아동교육의 양성에 있다고 보고 그 아동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본성에 맞게 스스로 자신이 되어가도록 돕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루소는 아동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본성개발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즉, 인위적 제한과 훈련에서 벗어나 아동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때 교육이 효과가 증진한다고 보고 있다(김숙이, 2006). 그러므로 아동교육을 인위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으로써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적인 발달로, 지식의 획득이 아닌 자연의 능력을 신장하는 것으로 시사한다(이범식, 2001).

루소 교육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어린이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토대로 하여야 하며, 타인에 의한 강제적이거나 처벌에 의한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 알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 길을 안내해 주는 데 있다는 길잡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김숙이, 2006). 즉, 루소 교육의 특징은 주입식 교육을 반대하고 소극적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손현목, 1989).

또한 루소 교육사상의 최종 지향점은 ‘어린이의 교육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교육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있었다(김숙이, 2006). 이것으로 보아 루소의 교육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 전체를 위한 공 교육론이다(김재면, 2000). 즉, 루소의 교육사상은 순수 교육사상과 사회 교육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루소에게 있어 개인이란 사회 속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의 교육론은 사회 전체를 위한 교육론이기도 하다(김숙이, 2006). 그러므로 루소의 교육은 좁은 범위에서는 아동교육 넓은 범위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 교육으로 볼 수 있겠다.

위 내용처럼 루소는 사회에서의 영향에 의해 빼돌어지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교육을 지향했으며, 타인의 의한 강제적·억압적 교육이 아닌, 스스로의 자발성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루소는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 교육을 최종 목적으로 잡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 루소 교육사상의 중심 개념들

### 1) 자연에 따른 교육

루소가 말하는 자연인은 사회에서 격리된 자연인이 아니라 사회의 속한 존재로서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이란 사회와 격리된 반문화적·야만적인 인간이 아니라 문화적·이념적 존재로서의 자유인을 말한다. 그리고 자연인이란 자신을 위해서 가치를 지니는 사람으로서 특정한 사회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 절대 완전성(entire absolute)을 지니며 독립적이고 자기 목적적 인간을 말한다(임상희, 1985: 239)

루소는 자연에서 스스로 탐색하고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도록 다음 아래의 문장을 통해 말한다.

자연을 관찰하라. 그 자연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라. 자연은 끊임없이 아이를 훈련시킨다. 자연은 온갖 종류의 시련으로 아이의 체질을 단련시킨다. 자연은 그에게 일찍부터 고통과 역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솟아나는 치아는 그들에게 열이 있게 한다. 격심한 복통은 그들에게 경련을 일으킨다. ... 시련은 아이에게 힘을 준다. 그리하여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 생명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 진다(김중현 역, 2008:79).

이처럼 루소는 사회에서 벗어난 자연에서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받으며, 유아기 스스로 고통과 역경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고통과 역경은 후에 아동이 성장하면서 그 버팀목이 될 것이고, 살아가면서 단단한 뿌리가 된다고 말한다. 즉, 어릴 적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통해 고난을 겪었다면, 후에 이 교육은 그 고난을 겪어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자연에 따르는 교육에는 그 시기 경험해야 하는 질서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 까지 아이이기를 원한다. 이 질서를 거역하면

우리는 익지도 않아 맛도 없는, 이내 썩어버릴 과일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김중현 역, 2008: 157).

자연에 따른 교육에는 질서가 있다. 하지만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교육은 어린 유아들을 유아답지 못한 아이로 만들 수 있다. 유아가 유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설연남, 2010). 루소는 아동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본성개발로 규정하고 인위적인 환경 즉, 인위적 제한과 훈련에서 벗어나 아동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때 교육의 효과가 증진한다고 말한다(김숙이: 2006).

## 2) 소극적 교육

루소의 『에밀』에서 소극적 교육은 주로 12세 이전의 유아·아동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소극적 교육은 영어 ‘negative educ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종래의 적극적 방법의 교육을 부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정은정, 2007: 23).

아동에게 미리 어떠한 위험이나 고통과 시련을 미리 막지 않고 일단 느껴보고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이 살아가면서 무조건 통제하거나 미리 조심한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지금 경험하지 않아도 후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송지민, 2006). 이처럼 루소는 아이들이 살면서 언젠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기 보다는 스스로 교육을 통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녀(에밀의 부모)는, 한때의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지켜 주는 것에 의해 장래에 얼마만큼의 사고와 위험을 아이에게 가져오게 하는지, 또 유년 시대의 약함을 오래 연장시켜 어른이 되었을 때 큰 고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송지민, 2006: 53).

또한 이 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좋은 것을 마련해서 외부

에서 주입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단지 외부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므로 소극적인 것이다(설연남, 2010). 이처럼 루소가 말하는 소극적은 아동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및 욕구를 인정하고, 외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통제 및 개입이 아닌, 소극적인 나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의무만을 하길 말한다.

다음은 루소의 소극적 교육에 대한 정의를 루소의 『크리스토프 드 보몽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다.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그 도구인 내부의 여러 기관을 완성하고 감각훈련에 의해 이성을 준비하는 교육을 나는 소극적 교육이라고 한다, 소극적 교육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육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미덕을 가르치지 않지만 악덕을 막는다. 또한 진리를 배우게 하지 않지만 잘못을 예방한다(안인회, 정희숙, 임현식, 1992: 64).

소극적 교육은 외부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통제하는 적극적인 교육의 반대 개념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재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개입하자는 것이다(황성원, 2012: 343). 다음은 루소가 말하는 적극적 교육과 소극적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충분한 연령이 되기 전에 정신을 형성하고자 어린이에게 인간의 의무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기로 하는 교육을 나는 적극적 교육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지식을 어린이에게 가르치기 전에 지식의 도구인 여러 기관을 완성시키고, 감성을 훈련시켜 이성에 대비코자 하는 교육을 나는 소극적 교육이라고 칭한다. 소극적인 교육이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미덕을 가르치지 않지만 악덕을 방지한다. 또 진리는 배우게 하지 않지만 오류를 예방한다. 어린이가 진리를 이해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진리로, 미를 사랑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선으로 어린이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다…(안인회, 1990: 110).

### 3. 루소 『에밀』 구성

루소는 어린이의 성장발달은 자연법칙에 따르는 것이며, 각 단계마다 그 고유한 특징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인위적으로 수정 불가능하다고 보았다(안인희, 1990: 42). 그는 인간 발달을 『에밀』을 통해 유아기·아동기·소년기·청년기 그리고 결혼하기까지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루소는 ‘에밀’이라는 가상의 남아를 자신의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자신의 저서인 『에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음은 위 내용에서 설명한 루소의 교육에 따라 성장한 ‘에밀’에 대해 알아보게자 한다.

#### 1) 영·유아기

이혜진(2008)은 유아기는 출생 이후 5세까지로, 루소는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어머니의 교육을 말한다. 그는 인간형성의 기초를 유아기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한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유아기의 심신 상태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신체를 강하게 키울 것을 말하면서 신체단련 교육 중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루소는 감각훈련으로 사물의 성질을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아의 감각발달과 사물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특히 시각과 촉각을 비교하고, 손가락으로 딱딱한 감촉을 눈으로 계량함으로써, 사물의 뜨겁고 찬 것, 딱딱하고 부드러움, 무게의 경중 등을 느끼며, 그 크기와 그 밖에 느낄 수 있는 사물의 모든 성질을 판단하는 것을 배운다... (오증자 역, 1984: 75)

갓난아기는 주위의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 감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그는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해서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러한 갓난아기의 생존은 바로 어머니들에게 달려있다. 갓난아기들에게 최초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가 된다(송지민, 2006: 36)

이 시기에 교육은 자기 보전에 필요한 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의 팔과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그는 그 당시의 귀족부인들이 자신의 아이의 교육을 유모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으며, 또한 유모들이 그 아이들이 귀찮게 하는 것을 피하려고 온몸을 묶어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송지민, 2006: 37).

‘자유’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라고 여긴 루소는 교육이 이런 가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특히 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출생한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데, 신생아를 천으로 둘러싸는 것은 자유를 해치는 의미와 같다. 당시 양육법에서 태어나자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강보에 싸는 풍습은 진정으로 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라 비판하였다(김명운, 2004: 7).

이에 따라 루소는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라는 메시지와 맹목적인 애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생각할 줄 아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아이를 직접 키우며 모유를 먹이고자 하였다(황성원, 2012: 345-346).

그리고 루소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인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발육에 필요한 신체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또한 분노하거나 슬픈 감정이 나타날 때는 배려교육을 실천하고, 노래를 통한 간단한 활동, 감각을 통한 사물의 성질을 학습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국어 교육 등 다양한 유아기 교육의 방법을 루소는 『에밀』을 통해 안내한다(황성원, 2012).

이처럼 영·유아기 시기에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어머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아동기

아동기에 들어서 비로소 어린이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아동이 유아와 구별되는 부분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아가 울음의 방식으로 부모나 유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 아동은 말로써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송지민, 2006: 36).

이 시기는 호기심이 많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하며 감각기관이 이전에 비해 성숙해진다. 아동기에는 감각 훈련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수영, 공놀이 등을 권장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발을 깔고 씨앗을 뿌리고 야채류가 자라는 것을 본다면 스스로 밭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며, 이런 노동을 통해 창조와 생산의 기쁨을 맛보면 학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김동일, 2004:93).

또한 이혜진(2008)은 루소는 이 시기에 발달하는 감각기관의 훈련이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에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감각은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이며 어린 시절에 완성해야 할 능력이라 다른 능력에 앞서 최초로 개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감각훈련은 단순히 그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는 이 능력에 의해 올바른 판단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느낌을 학습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는 손과 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도 있다. 그렇다면 체력만 훈련해서는 안된다. 체력을 지도하는 모든 감각을 훈련해야 한다. 감각 하나하나를 가능한 완전히 이용하라…(안인회 역, 1990: 124).

송지민(2006: 38)은 “아동기는 루소에게 있어 자연적인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계인데 그 것은 바로 인간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아동기가 자연적인 본성 즉 신성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시기의 교육은 자연적인 본성이 더욱 더 확대되어 깊이 드러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어린이 시기의 완성이 감각능력의 여부에 달린 이유를 『에밀』 속 다음 내용을 통해 설명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작다. 어린이에게는 어른의 체력도 없고 어른의 이성도 없다. 그러나 어린이도 역시 보는 일과 듣는 일에 있어선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거나 거의 같은 정도이다. 어른만큼 섬세하지는 못할지언정 민감한 미각을

지니고 있고, 또 냄새를 맡는 일에 있어서도 미감을 거기서 느껴지지는 못할 망정 어른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확히 구별해 낸다. 우리들 속에서 형성되고 완성되는 최초의 능력은 오감이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능력인 오감을 시초에 가꾸어 나가야만 한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다. 아니 어쩌면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인지도 모른다. (권영호 역, 1987: 227).

아동은 육체적 감각을 통하여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의 발전은 신체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시작된다(송지민, 2006: 40).

위 내용을 보아 아동기는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호기심이 왕성해진다. 그리고 신체 및 감각의 발달로 움직임의 자유가 생겨나는 시기이다.

### 3) 소년기

이 시기는 13세부터 15세까지의 지적 발달 시기로, 루소는 육체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노동 자체를 인간 형성의 일부로 보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론적이거나 언어적인 내용보다는 농사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유용한 과제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훈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김정원 외, 2018). 이에 따라 루소는 『에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소년기는 비록 그 기간이 절대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기간은 아니지만 내가 앞서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시기이다. 그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기간으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그 시기는 아주 짧다. ...그 기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인 만큼 더 짧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한다 (김중현 역, 2008: 296).

위 내용과 같이 소년기는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가지는 시기는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을 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학문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문에 대한 취미와 흥미를 길러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즉 많은 학문의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호기심과 지적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배우는 학습, 실물을 감각적으로 포착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하는 직관교육, 그리고 어린이 자신이 스스로 직접 구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들은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한 사물의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이혜진, 2008).

또한 루소는 12세까지 책을 통한 학습을 금지했다. 하지만 루소가 권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로빈슨 크루소』이다. 책을 통한 교육을 반대한 루소가 왜 권했는지 『에밀』 속 다음 내용을 통해 설명한다.

우리들에게 책이 절대로 필요한 이상 내 생각으로는 자연 교육에 관한 가장 훌륭한 개론이 될 수 있는 한권의 책은 존재할 것이다. 그 책은 나의 에밀이 읽게 될 최초의 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 한 권의 책만이 오래도록 그의 서가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언제까지나 그 서가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책이 될 것이다. 그 책은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며, 자연과학에 관한 우리들의 대화는 모두 다 그 책의 주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진전해가는 동안 우리들의 판단력의 정도를 시험해 보는 데 쓸모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취미가 망쳐지지 않는 한, 그 책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리라. 그러면 그 훌륭한 책이란 어떤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일까? 플라톤일까? 뷔퐁일까? 아니다. 그것은 로빈슨 크루소이다(권응호 역, 1987: 227).

『에밀』의 내용에 따르면 고독한 사람만이 진실로 행복하다고 한다. 루소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는 사회 속에서 홀로 존재하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인물이기 때문이다(송지민, 2006: 42~43). 그러나 루소가 이야기하는 고독은 인간이 타인과 아무런 접촉이 없이 독단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의견

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로 발전하여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루소가 말하는 고독한 사람은 타인과 아무런 접촉이 없는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미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주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송지민, 2006: 43).

즉, 루소는 위와 같은 시기에 이론적인 학문을 배우기보다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4) 청년기

청년기에는 아동기에서 연기되고 보류되었던 지식교육이 시작되어 도덕·종교·정치·문화·역사·지리·수학을 생활 속에서 직관과 경험에 의해 실제적으로 공부한다. 교육내용은 동화와 우화를 비롯하여 사회과학과 정신과학으로 윤리·종교·미학·법률·제2외국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존중한다(안인회, 1990). ‘제2의 탄생’에 해당하는 시기로, 16세에서 20세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정과 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며 루소의 가장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지적 교육이 전개되는 시기이다.

우리는 말하자면 두 번 태어난다. 한번은 생존하기 위해서이며, 또 다른 한번은 생활하기 위해서이다. 그 한차례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한 차례는 남자 또는 여자로서 태어나는 것이다(권응호 역, 1987: 384).

위 내용을 설명하자면, 청년기는 어린시기를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익히고,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를 넘어서서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제2의 탄생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안인회, 1990). 즉, 2차 성장을 말한다.

(송지민, 2006)은 “이 시기는 성에 눈 뜨기 시작하는 질풍노도 같은 시기이며, 넘쳐흐르는 정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성에게 관심을 쏟는다.”라고 말하며 나아가 지금까지 자기만을 사랑했던 에밀이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이성,

타인에게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된다. 즉, “성을 인식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타인에 대한 애정에 의해 사람은 고립된 존재에서 벗어나 사회적·도덕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루소의 입장에 따른 성인식과 타인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반려자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는 이미 하나의 고립된 존재일 수 없다. 그의 마음은 이미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와의 모든 관계, 그 영혼의 정애(情)愛가 그 마음과 함께 소생한다. 그의 최초의 정념이 곧 다른 정념들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권응호 역, 1987: 384).

이제 에밀은 어른이 되는 준비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소년기까지의 튼튼한 신체적 발달을 밑거름으로 하여 이성적 능력을 고취시킬 때가 온 것이다. 사고력, 추리력, 이해력 등의 지적 능력의 획득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사회적 존재가 된 것이다(송지민, 2006: 45).

위와 같은 시기는 루소에게 있어서 가장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지적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성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한다.

## 5) 성인기

성인기는 21세부터 시작되는 사회적·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참다운 자기 생활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 나간다. 루소의 저서인 『에밀』에서는 이 시기를 소피라는 가상의 여자와 결혼한 내용을 다루며 성인기를 설명하고 있다.

남자가 혼자 지낸다는 것은 좋지 않다. 에밀은 남자다. 우리는 그에게 반려자를 약속해 두었다. 지금은 그에게 반려자를 주어야 할 시기이다. 그 반려자가 소피이다(권응호 역, 1987: 390).

또한 루소는 소피의 조건을 『에밀』을 통해 설명한다.

소피는 에밀이 남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정신의 질서 속에서 그녀의 입장을 충만 시키기 위하여 그 종과 성의 성립에 알맞은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권용호 역, 1987: 189).

송지민(2006: 46)은 루소의 여성에 대한 시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루소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에밀의 것과 다르고 그 교육에 차별을 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루소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해서만은 보수적인 시각에 머물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당시 시대의 살롱의 주인공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자신의 아이 교육은 유모에게나 맡기는 그러한 여자들에 대한 비판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루소의 여성교육론은 우리의 도양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보수적인 전통 여성교육이 아니라 그는 가정보다 살롱문화를 즐기는 귀부인을 염두하여 아이 기르는 일을 유모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버리는 어머니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루소는 ‘여성이 현대사회 제도에 대해 무지하거나 사회적 관습, 예법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또한 판단을 좌우하는 정념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데서 루소의 여성에 대한 참뜻을 알 수 있다(송지민, 2006: 47).

성인기는 지적 교육 외에 남녀 간의 사랑을 중요하게 다루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는 에밀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 배우자를 정해 놓는 따위는 하지 않고 대신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과 알게 되기를 기다려 왔다. 이 운명을 지워 주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닌 자연이다. 나의 일은 자연이 행하는 선정(選定)을 발견하는 일이다(권용호 역, 1987: 384).

이렇듯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훌륭한 반려자가 첫 번째 조건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에밀은 사회인으로서의 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송지민, 2006: 47).

이처럼 루소는 자신의 저서인 『에밀』을 통해 인간 발달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루소는 발달 시기마다 받아야 할 교육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다음 발달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루소는 가상의 ‘에밀’의 성장과정을 통해 자신의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루소의 『에밀』을 단순히 바라보면 ‘자연’, ‘자연에 따른 교육’, ‘소극적 교육’ 등의 용어로만 바라볼 때 자연주의적 해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루소의 시대적 배경, 교육 사상의 특성, 그 외의 저서인 『인간의 불평등기원론』을 봤을 때, 루소의 교육을 단순히 자연주의적 해석으로만 바라보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에밀』의 연구 과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교육받은 인간이 타인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que deviendra pour les autres un homme uniquement elevé pour lui?)”라는 자문(自問)의 해결이다. 이는 타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는 자연주의적 기획에 따른 독해와는 변별되는 문제로 보인다(강성훈, 2008: 3). 그러므로 루소의 교육은 자연주의적 입장만으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 4. 선행연구의 고찰

루소는 많은 저서와 논문 등으로 자신의 업적을 남긴 학자로서, 오늘날까지 국내·외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루소는 생애동안 정치·사회·철학·문화·예술·종교·교육 등에 있어서 자신의 학문적·사상적인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이혜진, 2008). 그러나 본 선행연구의 고찰에서는 루소의 아동교육에 초점을 두고 국내 학자들의 논문 중 연구자가 입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김동일(1992)은 유아교육사상과 가정교육론에 중점을 두고 『에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루소의 교육사상 속에 유아교육의 위상과 본질이 현대교육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루소의 저서인 『에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그 중에서 유아기·아동기·소년기에 초점을 맞춰

교육목적, 내용, 방법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송지민(2006)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한국 교육에 주는 의미와 방향에 대해 루소의 『에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해결책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명제들과 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육개혁이 성과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서 송지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지식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하나의 치유책이 된다. 2) 교수-학습의 주체는 학습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교육방법 중 소극적 교육의 도입으로 이루어진다. 3) 입시 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비인간화 현상도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김숙이(2006)는 루소의 자연교육을 분석하고 자연주의 교육의 의미와 현대아동교육에 시사에 초점을 두어 고찰한다. 본 연구자는 루소의 자연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사상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루소의 교육사상의 특성과 루소 교육 사상의 의의를 통해 현대 아동교육에 시사점을 이야기한다. 연구결과는 “1) 자연에 따르는 교육은 인간의 내적 자연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의 외적자연을 의미한다고 보며,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및 소극적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다. 2) 교육에는 자연이 정한 순서와 시기가 있음을 말하며, 기능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은 지양해야 함을 제안한다. 3) 자연에 따르는 교육의 중심사상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조건을 최대한 존중하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충실한 교육을 할 것을 강조한다.”이다.

정은정(2007)은 루소의 교육방법 중 소극적 교육에 중점을 주고 교육목적,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초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루소의 자연주의적 교육목적은 초등교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며, 루소의 소극적 교육이 개인의 자발적 발달과 사회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초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혜진(2008)은 루소의 『에밀』을 중심으로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현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1) 후대 여러 교육사상가들이 근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대교육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한다. 2)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원천이 되어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한다. 3) 열린교육 및 대안교육의 철학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루소의 교육사상에 부정적 평가로 루소의 교육이론은 현실에서 적용하거나 실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말한다.

설연남(2010)은 루소의 소극적 교육의 유아교육적 함의를 논문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성을 기르는 교육은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므로, 이런 교육이 유아교육의 목표가 되어야한다. 2) 유아들은 스스로 느끼고 사고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유아교육은 유아의 자연적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따라서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3) 부모는 유아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누구보다도 유아의 인성교육에 힘들 기울여야 한다. 4) 소극적 교육의 대상인 유아들은 감각교육기에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은 감각적인 직접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아교육 담당자의 확실한 교육관의 정립과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있어야 한다. 6)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유아의 현재를 희생시키면서 성인의 기준에 의한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루소의 소극적 교육사상이 우리 유아교육에 주는 함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황성원(2012)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을 초점으로 루소의 교육론이 갖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자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데 루소의 교육론 의미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루소의 교육론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의 신교육 운동에 끼친 영향과 그 영향으로 어떠한 교육의 형태로 현존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1) 많은 루소 연구자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2)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현대사회는 급격히 발전한 자본주의로 인해 자연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기계적인 인간관계 및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첨단매체의 발달로 인해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3)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공동체 의식이 일하는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통해 키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소의 아동교육을 다룬 연구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에 달하는 연구 내용은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다룬 연구가 많았고, 접근방법 또한 유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 문제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Ⅲ. 연구 분석 틀

『에밀』에서 루소는 자신의 교육론을 펼치며 아버지의 행복을 글로 표현한다. 하지만 『에밀』 속에는 에밀이 성장 후 성인으로서의 삶과 이후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루소는 『에밀』의 속편인 『에밀과 소피』를 계획하고 1762년 즉시 실행에 옮긴다.

루소의 『에밀』 후속편으로 볼 수 있는 에밀의 성인기 이후의 모습을 지필한 『에밀과 소피』의 내용은 소피와 결혼한 에밀이 자신을 떠나버린 스승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 결말 없이 중단 되어지는 미완성 작품이다. 미완성이라는 부분의 한계를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욱(2008)은 『에밀과 소피』의 첫 번째 편지에서 에밀은 스승에게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데, 그 내막이 충격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에밀과 소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 중 하나가 죽고, 소피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에밀을 멀리한다. 에밀은 방황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소피에게 맡기고 고국을 떠나 정처 없이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한다. 또한 두 번째 편지에서 에밀은 배를 타고 가다 해적의 포로가 되고 곧 노예가 되어 알체에 팔려간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위 내용으로 보아 김영욱(2008: 55)은 “교육론의 관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에밀과 소피의 교육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연구자는 이 부분을 동의하며 자연주의 입장만의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덧붙여 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자연주의적 해석에만 편중되어진 인간본성에 따른 자연주의 교육을 통해 좋은(the good)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좋은 (the good) 사회의 조건(자연)의 갖추어진 상황에서만 자연주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에밀』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자연주의 교육이 좋은(the good) 사회를 지향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이상사회의 조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교육방법인지의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처럼 이상향에 대한 기술

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실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적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루소는 이상적 사회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지향한 유토피아적인 면으로 기존의 정치현실과 사회체제를 비판받았으며, 현실을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모순에 찬 세계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무가치한 현실을 가치의 세계로 지향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고 본 점(김동일, 2004: 19)에 대해 비판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김영옥(2008)의 글쓰기 욕망과 세 편의 가족소설: 루소의 『에밀』, 『에밀과 소피』 그리고 『고백』 논문을 참고하여, 루소의 저서를 넓은 범위로 살펴보려 하였다. 나아가 강성훈(2008)은 『루소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의 문제』을 통해 『에밀』속 등장하는 아동교육의 자연주의적 해석의 문제를 찾는데 참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기존 개론서 혹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밀』의 전통적인 자연주의적 입장만의 해석에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V.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

### 1. 개론서 및 논문에 표현된 루소의 교육론

유아교육에서 루소의 교육 이론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교육사상이 불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유아교육 관련 개론서와 루소를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 논문들을 통해 루소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론서는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이 한 권의 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과정 의사결정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론서에 표현될 수 있다. 개론서가 지식을 대량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이 점은 있지만, 무비판적인 종합, 사상의 지나친 분류, 진로 지도의 단순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화려한 수사로 포장하는 경향, 사회 지배집단의 가치와 활동을 전파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Schubert, et. al., 2009).

이에 연구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루소와 아동교육 관련 키워드를 검색 후 96건 중 인기도 순위로 선정한 2편과, 루소의 교육론이 소개된 3편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인 아동교육에 대해 다루는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루소가 말하는 아동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전국 토론회 3회, 현장 포럼 5회, 현장교사 간담회 3회, 전문가 자문 회의 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5월 16일 공청회, 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새로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개론서는 2018년 이후 개정된 것을 중 루소의 부분이 담겨 있는 4편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개론서와 논문에서 루소의 교육론에 대한 소개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1> 개론서 및 선행논문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교육 여부

구분	자연에 따르는 교육	소극적 교육
김금주 외(2018)	√	-
김승희(2018)	√	
지옥정 외(2018)	√	√
우수경 외(2019)		√
김숙이(2006)	√	
설연남(2010)		√
송지민(2006)	√	√
이혜진(2008)	√	√
황성원(2012)	√	√

개론서 및 선행 논문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교육에 여부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표Ⅱ-2>와 같다.

<표Ⅱ-2> 개론서 및 선행논문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교육의 정의

	자연에 따르는 교육	소극적 교육
김금주 외 6인	인간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김승희	인간의 선천적 능력을 자연이 법칙에 따라 발달시키는 것	
지옥정 외 4인	인간 내부의 자연성에 맞는 교육	교사 활동의 적극성을 최대한 줄이고 유아의 자연적 활동을 최대화 하는 것
우수경 외 5인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교육
김숙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의 외적자연을 의미, 아동의 천성적인 본성이 왜곡됨이 없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함	

송지민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단계에 맞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발달이며, 그러한 성장을 돕는 일이며,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착한 본성을 거스르는 장애물로부터 그 인간을 보호하는 일	고정된 습관에 길들이지 않는 교육, 자유와 독립성을 키우는 교육, 서두르지 않는 교육
설연남		외부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내부의 자연성을 보호하여 완성된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
이혜진	인위적인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아동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의 능력을 자연에 따라 발달시키는 것	아동의 자연성을 자발적으로 발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 교사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발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
황성원	우리의 능력과 신체기관의 내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재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교육

개론서에서 루소에 교육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며 각각의 정의 또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자연에 따르는 교육

위의 <표Ⅱ-1> 개론서 및 선행 논문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교육 여부에서 말하는 자연에 따르는 교육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말한다.

인간의 내적 자연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의 외적 자연을 의미, 아동의 천성적

인 본성이 왜곡됨이 없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김금주, 2018), 인간의 선천적 능력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달시키는 것(김승희, 2019), 인간 내부의 자연성에 맞는 교육(지옥정, 2018). 말하는 자연에 의한 교육은 인위적인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의 능력을 자연에 흐름에 따라 발달시키는 것(이혜진, 2008), 우리의 능력과 신체기관의 내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황성원, 2012).이라고 정의한다.

위 내용처럼 학자마다 서로의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연에 따르는 교육에 대해 일관적인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자연에 따르는 교육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만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자연이라는 공간에서의 필요한 교육에 대해 강조하는지 등 광범위한 해석 속에서 독자마다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어서 다음으로 루소의 교육 중 중요한 소극적 교육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살펴본다.

## 2) 소극적 교육

위의 <표Ⅱ-2> 개론서 및 선행 논문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교육의 정의에서 말하는 소극적 교육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말한다.

교사 활동의 적극성을 최대한 줄이고 유아의 자연적 활동을 최대화하는 것(지옥정, 2018),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교육(우수경, 2019), 고정된 습관에 길들이지 않는 교육, 자유와 독립성을 키우는 교육, 서두르지 않는 교육(송지민, 2006), 외부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내부의 자연성을 보호하여 완성된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설연남, 2010), 아동의 자연성을 자발적으로 발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 교사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발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혜진, 2008),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재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교육(황성원, 2012).이라 정의를 내린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소극적 교육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 교육, 최소한의 교육, 자연적 활동을 최대화하는 교육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유아기 아동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교육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2. 『에밀』을 통해 본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

루소는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성인중심의 아동관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최초로 아동을 아동 그 자체로 인정하였다. 또한 아동 초기의 성향, 즉 최초의 능력이 처음으로 싹틀 때가 교육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 발달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 알맞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성장이 끝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겨진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며 어린이에게는 성장과정의 각 시기마다 완성해야 하는 임무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 있어서 루소는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송지민, 2006: 48). 이처럼 루소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5단계로 구성하고 시기마다 받아야 할 교육의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에밀』을 통해 루소의 사상과 교육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계약론』은 “일반의지를 개인의 의지로서 받아들이는 ‘양도(사회계약)’를 정치권력의 ‘정당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자연교육의 방법은 미래에 사회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아동에게 길러주는 수단인 『에밀』이 있다(강성훈, 2008: 2).

루소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에밀』의 연구 과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교육받은 인간이 타인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que deviendra pour les autres un homme uniquement elevé pour lui?)”라는 자문(自問)의 해결이다. 이는 타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는 자연주의적 기획에 따른 독해와는 변별되는 문제로 보인다(강성훈, 2008: 3).

위 내용으로 보아 루소의 아동교육은 전통적인 자연주의적 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에밀』속 내용을 살펴보면 루소 사상의 전반적인 구도 및 요약은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 구도 및 요약이 전통적인 자연주의적 해석의 한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루소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원적인 상태는 자유 즉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

는 상태'이다. 따라서 루소가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은 타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존재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강성훈, 2008: 34). 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혼자서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신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루소가 '자연'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손길이 없고 사회의 간섭 또는 타인의 방해 없이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혼자서 생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에 자연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루소가 『에밀』을 통해 제시한 자연에 따른 교육과 소극적 교육에 대해 자연주의적 해석의 한계를 살펴본다.

### 1) 자연에 따른 교육

루소는 『에밀』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대명제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은 자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대명제를 제시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루소의 자연에 따른 교육을 다음 문장을 통해 알아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회가 시작되어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되면 사람들이 그 원초에 물려받은 성질과는 다른 성질이 그들 사이에 필요하였다는 것, 도덕이 인간의 행위 속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법률이 있기 이전에는 각자가 그 받은 보복의 유일한 판정자이고 복수 자였으므로 순수한 자연 상태에 어울리는 선은 벌써 새로 생긴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는 것, 모욕하는 기회가 점점 빈번하게 되어감에 따라 벌은 더욱 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복수의 두려움이 법률에 의한 제동기 대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 등등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권응호 역, 1987: 227).

루소는 “사회라는 곳은 사람과 사람이 설정되면 서로 모욕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벌은 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며 사회라는 곳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강성훈(2008)은 『에밀』 첫 문장 *Tout est bien, sortant des mains de l'auteur des choses : tout de dègènère entre mains de l'homme.*을 해석하며, 사회는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말을 한다.

루소의 최초의 약속을 살펴본다면, 그는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즉, 타인의 도움 받지 않고 종속되지 않도록 아이를 교육시키겠다고 말하며 나아가 그 아이가 정작 사람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강성훈, 2008:36).

이처럼 『에밀』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사회를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이에 자연이라는 곳에서 자연에 흐름에 따른 교육을 하고자 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갈등, 시기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서로 경쟁, 투쟁 속에서 평등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말한다.

위 내용으로 보아 기존 자연주의적 해석으로는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 즉 ‘자연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이혜진, 2008)을 말한다. 하지만 루소가 자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장소로서의 선택이 아닌,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갈등, 투쟁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자연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루소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아 루소가 이 개념을 고안해 낸 이유는 그를 통해 인류 역사의 방향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상정한 자연 상태와 현존인간의 상태를 연결시키기 위해 생각해낸 추상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강성훈, 2008: 117). 이에 본 연구자는 루소의 자연에 따른 교육에 대한 해석이 기존 자연주의적 해석만으로는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 2) 소극적 교육

루소는 『에밀』을 통해 억압된 교육이 아닌, 최소한의 개입으로 교육하라 말한다. 루소는 교육을 자발적인 활동을 토대로 하여야 하며, 강제 또는 처벌에 의한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김숙이, 2006). 이처럼 루소는 교사의 역할은 지식이나 이론적 배경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자연주의적 해석에 따른 소극적 교육의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설연남(2010: 21)은 “소극적 교육은 자연에 따르는 교육이며, 이는 유아에 대한 성선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타고난 선한 존재인 유아를 교육하는 것으로 그의 본성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유아의 자연적 본성을 지켜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시민으로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혜진(2008)은 소극적 교육은 어린이에게 서둘러 외부에서 지식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는 ‘자연에 따른 교육’으로 합자연의 원리와 일치하는 교육이라 말한다.

위에 내용으로 보아 자연주의적 해석에 따른 소극적 교육은 자연에 따른 교육과 더불어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영옥(2008)에 논문을 인용하여 살펴보자면 기존에 성선설의 입장과 다른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물의 창조자 손에서 나올 때에는 모든 것이 좋지만, 인간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퇴화한다.

Tout est bien, sortant des mains de l'auteur des choses : tout de dégènerè entre mains de l'homme. (Emil. 245)

김영옥(2008: 6~7)은 루소는 『불평등기원론』 1부를 행복한 자연인과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로 채운다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타락한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에는 불행이 없다.”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지금 이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욕구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욕망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여 말한다.

이와 같이 비초월성에 의해, 루소에게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으며 이에 따라 그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관념조차 형성될 수 없다. 비시간적인 존재의 자기충족 상태, 이것이 루소가 동질감을 느끼며 묘사한 자연인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좋다 bien”라는 말을 성선설의 술어로 이해하면 안 된다(김영욱 2008: 7).

이처럼 전통적인 자연주의적 해석만으로는 루소의 아동교육 중 소극적 교육 또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강성훈(2008)은 집단생활을 통해 발생한 대상들에 대한 비교능력은 인간을 타인의 시선에 종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의지에 종속시켰던 것이다. 라고 예를 들며 외부의 영향 없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즉, 소극적 교육은 누군가에 의한 교육, 억압, 종속이 아닌 외부의 영향을 최소로 하고자하는 교육의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연구자는 유아교육 문헌에 표현된 루소의 교육사상이 자연주의적 입장으로만 치우친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통해 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교육론과 교육사상을 명확하게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알아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루소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의 교육사상 및 교육론은 현재 아동교육에 있어서 꾸준히 대두되어지고 있다. 루소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나누어 각 시기마다 경험해야 할 교육이 있음을 말하며 그 교육을 『에밀』을 통해 말한다. 루소의 교육은 크게 ‘자연에 따르는 교육’과 ‘소극적 교육’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루소의 교육을 재해석하기 위해 먼저 현재 개론서 및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루소의 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루소의 시대적 배경 및 교육사상의 특성 철학 구조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그의 저서인 『에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5단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 분석 틀을 설정하여 루소의 아동교육을 재해석하여 루소의 아동교육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루소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통해 그의 아동교육 사상의 형성배경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학자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통해 그 학자의 교육적 사상에 대해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루소의 시대인 17세기 후반과 18세기의 대부분은 종교와 도덕에서 형식주의가 만연하였고, 이 때문에 방자한 기풍이 확산되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시대적 상황은 계몽주의 사상이 전개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런 계몽주의 사상적 흐름과 자연주의 운동은 루소의 교육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루소는 이상적 사회를 지향한 유토피아적인 면으로 기존의 정치현실과 사회 체제를 비판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루소의 교육사

상의 특징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회에서의 영향에 빠뜨어지지 않은 자연 본성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런 인간을 육성하고자 했다. 또한 루소는 교육사상이 최종 지향점은 아동 교육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타락된 현재 사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하고자 하였다.

둘째, 『에밀』에서 나타나는 5가지 발달단계를 알아보았다. 루소는 인간을 영·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로 나누어 설명한 『에밀』을 살펴봤다. 이 장에서는 루소가 각 아동이 단계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 방법과 그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는 영·유아기에는 어머니와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유아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임을 말하며 감각 교육을 강조하였다. 소년기에는 지적 교육보다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훈련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청년기에는 그동안 보류되었던 지식 교육을 시작되어 생활 속에서 직관과 경험에 의해 실제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성인기에는 참다운 자기 생활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이제는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미를 수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유아교육 문헌에 나타난 루소의 아동교육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론서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이 교육론에 강조된다. 자연주의에 따르면 루소는 교육론을 ‘자연에 따르는 교육’ 그리고 ‘소극적 교육’으로 크게 두 가지의 교육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연에 따르는 교육은 자연에서 자연에 맞추어 성장하는 교육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말한다. 이어서 소극적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지식전달적 일방적인 주입식 학습이 아니라 아동에게 있어서 외부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교육, 고정된 습관에 길들이지 않는 교육 등 기존 자연주의적 입장에 해석이 주로 나타난다. 하지만 루소의 교육사상은 자연주의적 사상만으로 해석되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넷째, 루소의 교육사상은 자연주의적 측면으로만 해석되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루소는 『에밀』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에 흐름에 맡겨 교육해라’ 등의 자연주의적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용어를 단순한 개념으로 살펴보기에는 루소의 시대적·사상적 배경 그리고 저서를 고려하여 살펴볼

때, 그의 아동교육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 2. 결론

루소의 교육사상은 현재 아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의 교육에 대한 해석은 광범위하고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루소의 아동교육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자연주의에 시점으로 보던 정의와 그 반대의 견해로 현재까지 양자 관계의 정의가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오류를 밝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단지 현재 아동교육에 있어서 루소의 아동교육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의 문제를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루소의 사상은 자신이 살았던 18세기 시대적 흐름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두고 부분적인 것을 받아들였다. 또한 루소는 사회를 타락한 것으로 보고 이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루소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 교육을 하고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자연에 따른 교육과 소극적 교육의 핵심 용어를 기존 자연주의적 입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연에 따른 교육은 기존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단순하게 ‘공간’또는‘환경’적 의미에 가까웠다, 하지만 루소의 교육사상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면 자연에 따른 교육은 그가 상정한 자연 상태와 현존 인간의 상태를 연결시키기 위해 생각해낸 추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소극적 교육 또한 자연주의적 해석만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최소한의 개입’등 명확하지 않은 정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소극적 교육은 루소가 말하는 타락된 사회 즉, 인간이 집단생활을 통해 발생한 갈등과 인간을 타인의 시선에 결과적으로 종속시켰던 타락한 사회에서 받았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소극적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유아교육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교육사상이 재점검 될 필요가 있다. 문헌에 제시된 루소의 아동교육 사상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주로 전통적인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되어 있다. 간혹 선행연구를 통해 몇 학자들이 자연주의적 해석에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논문의 양은 적은 편이다. 루소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으로 보아 루소의 교육사상의 특성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교육을 지향했으며, 반대로 타인에 의한 강제적·억압적 교육을 비판했다. 이처럼 자연주의적 아동교육 해석이 재점검 되어야 한다.

루소에 대해 누군가는 이상적인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는 학자로, 누군가에게는 현실에 필요한 교육 방법을 제시한 학자로, 누군가에게 루소는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다. 루소의 생을 살펴보면 그 또한 아이였고, 나아가 성인이 되었다.

루소는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던 아동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아동을 최초로 본연의 모습으로 인정하였으며, 아동중심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루소는 아동의 발달시기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방법과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이 아닌 본연의 존재임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는 아이들을 성인의 축소판, 또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던 시기에 유일하게 아동의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준 학자이다. 또한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아동을 위해 교육 방법을 주장한 학자이다.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지만 아동 교육에 있어서 루소는 아동을 ‘아동’ 자체로서 인정해 준 학자이므로 그의 아동교육사상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 VI.참고문헌

- 강성훈(2008), 루소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의 문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금주, 권세경, 김은정, 나은숙, 오진희, 이금구, 황혜경(2018), 유아교육개론. 서울: 학지사.
- 김동일(1992), Rousseau의 아동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일(2004), Rousseau의 유아교육사상. 경기도: 양서원.
- 김명운(2004), 에밀에 나타난 루소의 교육방법.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상섭(2003), 루소에 있어서 사적 가정교육과 공적 시민교육의 통합문제. 한국교육철학회, 29, 1-25.
- 김상섭(2009), 현대인의 교사 루소, 루소는 에밀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서울: 학지사.
- 김숙이(2006),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 현대 아동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 19, 145-166.
- 김승희(2018), 유아교육개론. 경기도: 지식공동체.
- 김영옥(2008), 글쓰기 욕망과 세 편의 가족소설 : 루소의 에밀, 에밀과 소피, 그리고 고백. 서울대학교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김용민(2004), 루소의 정치적 철학. 서울: 인간사랑.
- 김재면(2000), J.J. Rousseau의 교육사상에 대한 고찰.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원, 이경화, 이연규, 전선옥, 조순옥, 조화연, 최일선(2018), 보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 김태호(2004),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2009),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과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병(2001), 루소 교육이론의 사회철학적 측면: 자연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연남 (2010), 루소의 소극적 교육의 유아교육적 함의.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현목(1989), 에밀. 서울: 양서원.
- 송지민(2006),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한국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회(1985), 루소의 교육론. 양서원.
- 안인회(1990), 에밀 루소의 교육론. 서울: 양서원.
- 안인회, 정희숙, 임현식(1992),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우수경, 김현자, 신선희, 유명희, 김호, 김현정(2019), 유아교육개론. 서울: 학지사.
- 이범식(2001), J. J. 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2008),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현대교육에 미친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희(1985), 교육사상사. 서울: 백산서당.
- 정은정(2007), Rousseau의 소극적 교육의 초등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영흠(2003), 자연주의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지윤환(2007), 정성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 흥신문화사.
- 지옥정, 김수영, 정정희, 고미애, 조혜진(2018), 유아교육개론. 서울: 창지사.
- 차석기(1986). 교육학 및 교육 철학. 서울: 집문당.
- 황성원(2012),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과 그 현재성. 한국 열린교육연구회. 20(4), 337-355.
- Rousseau, J.J.,(1762) Emile, 권웅호(역)(1987), 에밀, 서울: 흥신문화사.
- Rousseau, J.J.,(1762) Emile, 김중현(역)(2008), 에밀, 파주: 한길사.

Rousseau, J.J.,(1762) Emile, 민회식(역)(2008), 에밀, 서울: 육문사.

Rousseau J.J.,(1762) Emile, 오증자(역)(1984), 에밀( I ), 서울: 박영사.

Schubert, W., Schubert, A. L., Thomas, T, & Carroll, W. (2009). Curriculum books. 강인수, 민부자, 김상돈, 이승미, 서하나, 김대영(공역), 교육과정 100년, 서울: 학지사.

【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Rousseau's  
Natural Education of Children  
Presented in Child Education Literature

Park Hee-kyeong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on & Education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Kim Da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Rousseau's educational ideas through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and based on this, it aims to raise a ques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Rousseau's educational ideas that couldn't be interpreted through the existing naturalistic interpretation in terms of child education.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set as follows:

First, what is Rousseau's life and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his ideas about child education?

Second, how are the meanings of 'education according to nature' and 'negative education' are expressed, which are the key terms in Rousseau's child education ideas presented in child education literature?

Third, how can Rousseau's natural education of children be interpreted through 『Emile』 ?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nd discussed as follows: Rousseau is a leading education philosopher in child education. In his book 『Emile』 , he divides human development into five stages based on his philosophy, presents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hild education. However, Rousseau's definition of child education has limits in interpreting only from a naturalistic perspective.

The problems of the interpretation of Rousseau's natural education of children presented in childhood literat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Rousseau's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First, Rousseau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many later scholars and still influences the direction of child education today. Rousseau criticized cramming education and emphasized child-centered education through his educational ideas. In particular, his child-centered philosophy has had a negative and positive influence on Kant, Basedow, Pestalozzi, and Dewey, and he can be regarded as a pioneer in today's education.

Second, this study introduces teaching methods through key terms such as 'education according to nature' and 'negative education' which are important for Rousseau's educational ideas. First, in the case of 'education according to nature', Rousseau sees society as becoming more and more corrupted through 『Discourse on Inequality』 , and nature as a place to get out of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that Rousseau chose nature to escape from the unequal society where people conflict and struggle to become superior among men, rather than a simple concept of 'space' or 'environment'. Accordingly, education according to nature can be regarded as an abstract educational method to connect his conception of a human state and a nature state. In the case of negative education, the ability to compare the objects generated through group life seems to have subordinated humans to the gaze

of others, rather than meaning 'minimal external interferences' from the existing naturalistic interpretation. Therefore, negative education can be a life without exterior influences and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means of education to minimize exterior influences, not education, oppression, and subordination by somebody.

Third, Rousseau's definition of child education was largely interpreted from a conventional naturalistic perspective. However, the definition of child education in his books 『Emile』,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 on Inequality』 has a limit to be interpreted only from a naturalistic perspective. This is because Rousseau advocated his conception of nature, rather than claiming 'nature' in the general sense.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rrectly understand Rousseau's ideas about child education only from an existing naturalistic viewpoint, so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interpretation of Rousseau's ideas about education from a naturalistic viewpoint on the matters, such as construction of new society and humans who adjust to society, besides a description of nature as a simple concept.

*Key Words: Emile, Rousseau, natural education, child-centered education.*